

영암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들어선다

산단 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27억 확보 2025년 준공 예정
인력수급 해소·청년유입 기대

영암군 신북농공단지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단공단)이 주관한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에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발탁돼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
신북농공단지는 1986년에 조성된 노후농공단지로서 90년대(주전량 등 입주기업)를 필두로 지역 경제를 견인했지만, 섬유산업의 저부가가치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농공단지 침체가 큰 상황이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편의·문화시설이 전무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영암군은 농공단지 근로자 및 인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평가단의 현

지조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오는 2025년 준공예정이다.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부지(4,640㎡)에 지상 3층 연면적 1,140㎡ 규모의 다목적홀, 갤러리 카페, 편의점,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공유오피스 등 문화·편의·체육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총사업비 39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국비 27억과 지방비 12억 4,000만원 등을 투입해 농공단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근로자 및 인근 지역민의 일과 여가 양립과 근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인력수급 문제에 직면한 입주기업에 청년층 인규유입을 위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윤병태 당선인, '나주대전환 인수위' 출범

시민 중심 행정혁신안 중점

윤병태 나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8일 '나주대전환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에 들어갔다.

나주대전환 인수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고문인 여성구 위원장과 전 나주시의회 의원인 이동복 부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회는 자치행정분과, 농업농촌분과, 경제일자리분과, 교육복지분과, 문화관광분과와 함께 시정혁신특별위원회, 시민권익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활동할 계획이다.

별도의 자문위원회도 설치하는데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과 및 특위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인정받은 실무형 인사로 배치했고 여성위원이 40%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나주 대전환의 기초를 '혁신'과 '회합'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시의 조직 및 예산 파



윤병태 나주시장 당선인의 주도로 지난 8일 '나주대전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악, 시정 주요 현황 파악,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선8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윤병태 나주시장 당선인의 공약 점검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시민권익 특별위원회는 악취문제, SRF 문제, 대중교통 문제 등 시급한 현안 및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혁신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시정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현재 나주시 행정의 문제를 파악하고 소통실 폐지 등 시민 중심의 행정 혁

신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 당선인은 인수 출범식에서 "나주대전환 인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고 청년·여성·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하는 인수위가 되도록 하겠다"며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행정을 정상화시켜 시민을 위해 확 바뀐 시정으로 혁신하고 나주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려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만드는 초석을 이루자"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여수 대한노인회관 준공식

(사)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가 최근 신축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봉 여주시장, 신명호 ㈜부영주택 회장, 김명남 지회장과 경로당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회관 기증식, 감사패 수여, 축사, 회관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준공된 대한노인회관은 기존 위치인 신월로 685에 연 면적 998㎡, 지상 4층 규모로 들

어섰다. (주)부영주택과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가 지난해 7월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9월 착공해 이날 기증식을 가졌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회관 신축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에에서도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축된 회관은 여수시 526개 경로당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곽재영 기자



강진군 친환경 축산관리실 연구원이 번식우 임신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번식우 임신 조기진단 무료 서비스 호응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관내 한우농가의 효율적인 번식우 관리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번식우 임신 조기진단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일반적인 한우 임신 감정은 수정한 지 90일 전후로 초음파 측정이나 직장에 직접 손을 넣어 진단해야 하지만 임신 조기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정

28일 경과 후 빠르게 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임신진단은 98%의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감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혈액채취용 튜브를 받아 수정 후 28일이 지난 소의 혈액을 채취하고 개체식별번호와 수정일 등을 기재한 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축산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강진=한태선 기자

곡성, '우리 동네 밀키트' 선봬다

지역 10개 음식점 시연회

곡성군이 최근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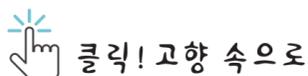
곡성군은 캠핑객을 겨냥해 지역 먹거리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음식점 메뉴를 밀키트로 제작하

고 이를 지역 캠핑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곡성군 홍보대사인 강레오 셰프가 밀키트 제작에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지역 음식점 10개 업체가 참여해 밀키트 요리 시범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참가 매운탕, 석곡흑돼지 석쇠구이, 곡성

깨비정식 등 곡성 대표 음식은 물론 감자탕, 갈비탕, 해물 찜닭구이 등 다양한 음식이 시연회를 통해 소개됐다. 앞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화하고 후가점이 시작되는 7월부터 배달 시스템을 갖춰 지역 캠핑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음식점들은 판로 다변화를 통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밀키트 개발이 완료되면 야외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곡성 유명 음식들을 캠핑장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용산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

장흥군 용산면 복지기동대는 최근 지역 어려운 이웃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복지기동대원은 싱크대 노후로 물이 새, 불편함을 겪고 있던 가정을 방문해 싱크대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용산면 복지기동대는 집수리, 도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조

직이다. 복지기동대는 용산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발굴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집 수리에 염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보성 읍치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보성군 읍치면이 최근 희망드림협의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손을 잡고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사업에 나섰다.

이번 집수리 사업에는 안병무 면민회장을 비롯한 6명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했으며, 도배, 문 교체 작업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2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재원은 대영ISD·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00만원을 후원받았다.

이형준 읍치면장은 "집수리 봉사활동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고흥읍 자치위, 탁구장 개장식

고흥군 고흥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1층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이·단장, 부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탁구장 개장식을 열었다.

고흥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탁구장 운영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자연정화 활동, 찾아가는 마을

문화공연, 취약계층 사랑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할 계획이다.

류상호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 간 화합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진종연 기자